

“고물가·인파 피해서”… 도심 내 이색 피서지 ‘눈길’

관공서·도서관·미술관 등 ‘복직’
“피서지 물가·숙박·교통비 부담”
10명 중 6명 휴가철 여행 안가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Stay와 Vacation의 합성어)’이 주목받고 있다. 높은 물가와 많은 인파가 물리는 피서지에서의 휴가를 대신해 대중교통과 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집 앞 관공서, 도서관, 미술관 등에서 ‘가성비’ 이색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도 늘며 눈길을 끈다.

최고 기온 34도의 찜통더위가 이어진 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청 1층 로비의 시민편의공간.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찜통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선풍기 바람을 쐬며 영상 시청과 독서를 하거나 지인들과 수다를 떨며 잠시 더위를 잊는 듯한 모습이었다.

대학생 이효린(22)씨는 “최근 SNS를 통해 광주시청에서 시민편의공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방학 중 어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으러 시청을 찾았다”며 “광주에도 도심 관공서에 더위를 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하고 조용해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로비 옆에 위치한 무인카페도 인기를 끌었다. 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은 냉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텀블러와 공유 플라스틱 컵 등을 들고 길게 줄을 지었다.

직장인 김시현(26)씨는 “시중보다 훨씬 싼 1000원대의 가격에 음료를 구매할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뜰 피서객들이 도심 속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1일 광주 서구 맛고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하사워터플레이’에서 워터슬라이드 등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 위) 학생과 시민들이 시원한 광주 동구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다.

김양배·윤준명 기자

수 있어 카페 대신 시청 로비를 찾았다. 노트북으로 영화를 시청하며 휴식을 취할 생각이다”며 “사회초년생이라 주요 피서지 물가와 숙박비·교통비 등이 부담된다. 올해는 집 근처에서 지인과 모임을 가지며 휴가를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동구 동명동 중앙도서관. 점심식사를 마친 이용객들이 하나둘씩 빈자리를 채웠다.

이용객들은 에어컨 앞에서 밀린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한편에 마련된 간이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이들도 있었다.

취업 준비생 이현우(28)씨는 “원래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편인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 더위를 식히러 도서관을 찾았다”며 “새로운 장소에서 공부하니 기분 전환도 되고 시원하고 쾌적해 늘들도

연일 폭염특보 광주·전남, 오늘·내일 일부 지역 소나기

연일 폭염 특보와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며 무더위가 절정인 광주·전남에선 당분간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일부터 3일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일과 3일 모두 광주·전남내륙 5~20mm로 각각 예측됐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

기온은 31~36도가 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 기온은 33~3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 무더워질 것”이라며 “당분간 광주와 전남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활동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에어컨 실외기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정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기

광주경찰,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활동 강화

최근 광주서 사망 사고 2건 발생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광주경찰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의 협조로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홍보, 학부모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한다.

광주 19개 대학교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킥보드 집결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부착하는 등 안전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해 대리운전 기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 광주 소재 군부대를 찾아가 장병 400명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달 28일 전동킥보드를 탄던 20대 남성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숨졌고, 20일에는 휴가를 나온 군장병이 탄 전동킥보드가 통근버스를 충돌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

다.

경찰은 이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관기관과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확대하고 공유킥보드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이용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연인과 말다툼 중 화물에… 화물차 불태운 50대 ‘입건’

광주 북구 두암동서…3분만 진화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물에 자신의 트럭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31일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1톤 화물차 적재함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시민들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 등으로 자체 진화해 3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차량이 일부 소실돼 소방 추산 392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물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광주 남구, ‘복합 기능’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나선다

광주 남구가 효덕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소통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건립에 나선다.

남구는 오는 9월부터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난 2021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남구는 광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비롯해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해 왔다.

효천2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면서 효덕동 내에 인구 과밀화 문제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덕동 관할 행정구역을 진월동과 효덕동으로 나누면서 건물 임대 방식으로 사용 중인 효덕동에 새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남구는 사업비 69억원가량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한다. 공사 기간은 18개월 정도가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효천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옆에 들어선다.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지하 1층의 주된 용도는 주차장이며, 1층은 행정업무를 위한 민원실과 복지 상담실 등이 조성된다.

2층에는 공유와 휴식, 나눔 공간을 비롯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수유실, 유아 화장실, 각종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을 만들며, 3층은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과 하늘 정원, 옥외 데크 등이 조성된다.

박찬기